

# 매입지연손해 月1억...강진군 산단 분양 사활

3년간 분양률 10%대 저조  
기업유치 포상금제 도입하고  
관련부서 조직 대폭 보강  
2021년까지 100% 분양 총력



이승욱(가운데) 강진군수가 최근 성전산단을 찾아 산단의 시설관리와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해 포상제를 도입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산단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산단 분양 100% 달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알선 등 산단 기업유치 기여도 및 투자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실제 투자가 이뤄진 이후 이듬해 2월 말까지 투자유치 유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투자비 120억원 미만 기업일 경우 최대 36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인사우대 가점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이 이처럼 강진산단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것은 저조한 분양률과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전남개발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매입지연손해금이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강진산단은 지난 2014년 조성(20만평 규모)을 완료해 그해 7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경기불황과 광주·전남권 산단 과잉 조성, 환경영향에 대한 유해 인식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난관을 겪으며 현재 분양률이 16.4%로 저조한 상태다.

전남개발공사와 군이 맺은 공동이행협약은 분양공고 3년이 되는 날부터 미분양 토지에 대해 강진군이 일괄 매입해야 하고 일괄매입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군이 전남개발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분양토지 대금은 현재 339억원에 이

르며 매입지연손해금은 매월 1억600만원이다.

이에따라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산단의 심각성을 깨닫고 군정의 핵심 목표로 '강진산단 분양 100% 임기 내 달성'을 내걸었다.

군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애초 산단 조성의 목적이었다던 환경산업 특화로 선진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견실한 환경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군은 또 스마트팜 등 지역 주민에게 환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군은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조직을 보강하고 자원재생업체 등의 유치를 통해 2021년말까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약된 매입지연손해금은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다"며 "분양 100% 달성을 위해서는 공화사회는 물론 향우들과 전 군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영암군 다문화센터 아버지 육아 사진전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영희)는 최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장에서 아버지 육아 사진전(사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영암군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 56명이 신청했고 자체 심사를 통해 15개 작품이 최종 결선에 진출해 사진전을 열게 됐다.

군은 국화축제 등 행사에도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에 있을 영암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호평을 받고 있다"며 "사진전을 계기로 자녀양육이 엄마만의 몫이 아닌 아버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양성평등한 사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3월 영암군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돼 '배려와 소통, 실천 속에서 꽃피는 건강한 가정'을 주제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국무조정실 평가단, 강진 '푸소' 운영 전학

강진군이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푸소'가 전국적인 농촌관광 활성화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평가단이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4일 강진을 방문해 푸소체험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평가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동행했다.

푸소는 펄링업(Feeling Up), 스트레스 오프(Stress Off)의 첫 글자를 따 '감성은 울리고 스트레스는 날려 버리라'라는 뜻을 지닌 강진군만의 농가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농촌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짬짬과 명ச்ச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곤

충체험, 고구마·도라지 캐기, 단감·버섯 따기, 콩 수확, 토하·미꾸라지 잡기, 다도 등을 체험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여기에 강진지역의 자산인 감성을 연계했다.

강진 시문학과기념관이 정부 사업비로 운영하는 '인문학의 샘, 영광감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광감성학교는 역할극 실연과, 생활도구 활용 화음내기, 꽃·꽃말 인문학, 오페라 연주 감상, 감성이 있는 인문학이야기, 눈으로 만지는 세계명화, 시심을 찾는 레크리에이션,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네한바퀴, 작가와 함께 걷는 시인의 길 등 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청자축제 개막 공연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축제인 제46회 강진청자축제 '휴, 불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지난 28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류청자의 해상실�크로드를 영상으로 표현한 공연이 펼쳐졌다. <강진군 제공>

## 장흥군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교육·점검

장흥군이 지난 24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에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지역 어린이집 17개소 원장과 통학버스 운전자가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통자 표준매뉴얼 관련 교육과 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지적측량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영암군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태양광설치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적측량 민원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군지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5일부터 인접 합평군지사로부터 1개팀(3명)을 지원받아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3개월의 지적측량 민원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와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인해 측량업무 처리가 지체되고 있고 7월 현재 150여건의 지적측량 민원업무가 접수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민원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국도 23호선 용산면~장흥읍 확장도로 개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장흥군 용산면에서 장흥읍 순지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도로를 지난 26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총 5.7km 구간을 2-4차로로 확장하는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12년 착공했으며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길이 780m의 자율재 터널과 교량 2개소, 교차로 8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장흥읍에서 용산면에 이르는 기존 국도 23호선 구간은 산악지역으로 급경사와 급커브 등이 심하고 겨울철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운전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해발 371m 자율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신설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약 2km, 운행시간은 5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인근 천관산과 노력항 여객터미널을 찾는 발길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사고위험이 높고 불편했던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구간 확장이 마무리돼 안전한 도로로 탄생했다"며 "인근 장흥-유치, 대덕-용산, 강진-마량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투자자모집

- ▶법원경매 진행/낙찰물건외 기타 부동산
- ▶1억원 투자시 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
-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 ▶투자금 1억원 이상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